

(불 임)

전시유물 설명자료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天象列次分野之圖 刻石

조선朝鮮, 1395

국보 제228호



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複刻天象列次分野之圖 刻石

조선朝鮮, 1687

보물 제8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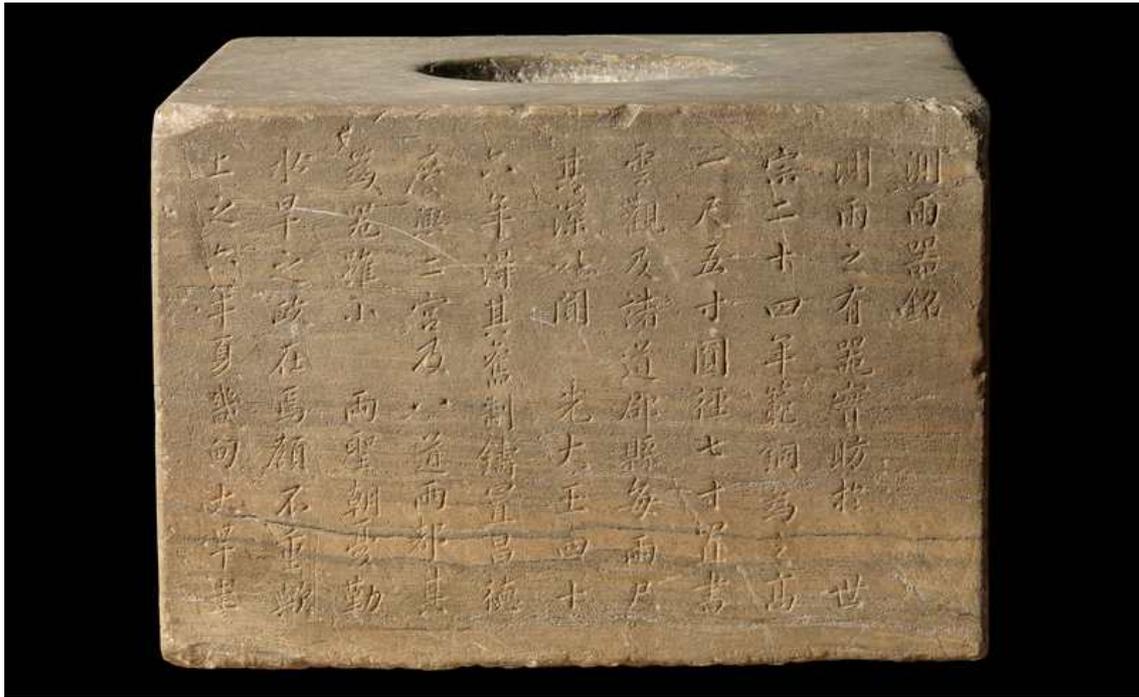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하늘의 모습을 구역을 나누어 차례로 배열하여 그린 천문도’로 돌에 새겨 전해진다. 조선 건국 이전 평양성에 천문도 각석이 있었으나 전란 중 사라졌는데, 태조 즉위 초 그 탁본을 구해 당대에 맞게 고쳐 1395년(태조 4) 완성하였다는 제작 경위가 적혀 있다. 천문을 살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아 통치하는 국왕의 의무로 여겨졌으므로 태조는 천문도를 제작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했다. 천문도의 가장 안쪽 원 안에는 북두칠성과 같이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 그 바깥에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 별자리를 새기고, 별의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표현하였다. 태조 대의 각석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자 숙종 대인 1687년(숙종 13년) 이를 다른 돌에 옮겨 새겼다.

측우대

測雨臺

조선朝鮮, 1782년

보물 제844호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기인 측우기의 받침대로 1782년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한국전쟁 당시 측우기는 사라지고 측우대만 남았다. 네 면에는 세종대 시작되어 영조대에 부활한 측우기의 전통과 제작 의미, 홍수와 가뭄을 다스리고자 했던 정조의 뜻 등을 담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양부일구

仰釜日晷

조선朝鮮

보물 제845호



시계판이 가마솥 모양으로 오목하게 생긴 해시계이다. 1434년(세종 16)에 처음 만들어져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시계판에는 시각을 표현한 세로선과 절기를 나타낸 13개의 가로선을 새겼다. 북극을 가리키는 시계 바늘의 그림자 끝 부분을 읽으면 절기와 시각을 동시에 알 수 있었다.

신법 지평일구

新法 地平日晷

조선朝鮮, 18세기

보물 제840호



서양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제작된 중국의 해시계 신법지평일구를 토대로 만든 평면 해시계이다. 중국의 해시계를 바탕으로 하되 한양의 북극고도를 기준으로 제작하였다.

복원 자격루

自擊漏



‘스스로 치는 시계’라는 뜻의 자격루는 물시계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일반적인 물시계는 용기에 일정한 속도로 흘러든 물의 양으로 시간을 측정하는데, 자격루는 물을 받는 항아리인 수수호受水壺의 물이 일정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종, 북, 징을 쳐서 시각을 알려준다. 1434년(세종 16년) 세종世宗의 명으로 장영실蔣英實이 만들어 경복궁 경회루 남쪽 보루각報漏閣에 처음 설치하였다. 자격루가 치는 시각에 따라 궐 밖의 종루에서 북과 종을 쳐서 백성에게 오정午正(낮 12시), 궁궐 및 도성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각 등을 알렸다. 현재 1536년(중종 31년) 창경궁에 설치되었던 자격루의 파수호播水壺와 수수호(국보 제229호)가 덕수궁에 남아 있다.

자격루의 시각 알림 장치는 하루에 12번 시각을 알리는 종, 밤 동안 시각을 알리는 북과 징으로 구성된다. 옛날에는 하루의 시간을 열둘로 나누어 자시子時(밤 11~새벽 1시)로 시작하여 해시亥時(밤 9~11시)로 끝나는 시간 체계를 사용했으며 매 시時가 시작할 때마다 자격루의 종을 울렸다. 밤에는 해지는 시각부터 해 뜨는 시각까지를 하루 밤으로 설정하였는데, 하루 밤을 다섯 등분하여 이를 ‘경更’이라 부르고 북으로 알렸으며, 1경을 다시 다섯 등분하여 ‘점點’이라 부르고 징으로 알렸다. 밤의 길이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므로 경과 점의 시각 역시 달라졌다.

복원된 자격루는 밤에만 울렸던 북과 징을 관람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년 중 밤이 가장 짧은 하지夏至를 기준으로 삼아 조정해 놓았다.

사각유척

籒尺

조선朝鮮



조선시대 자는 쓰임새에 따라 각기 다른 표준 척도를 사용했다. 옷감이나 종이 등의 길이를 잴 때는 포백척布帛尺, 각종 악기를 만들고 음률을 맞추는 때는 황종척黃鍾尺, 궁궐·산릉·성벽 등 건축 공사에는 영조척營造尺, 종묘 제기 등 의례용 기물을 제작할 때는 예기척禮器尺, 토지와 도로를 측량하거나 천문·기상을 측정할 때는 주척周尺을 사용했다. 본 유물은 다섯 가지 표준 척도를 하나의 사각기 등에 새겼다. 1면에 예기척과 주척, 2면에 포백척, 3면에 영조척 4면에 황종척을 반 자[척尺] 씩 분[분分] 단위까지 정교하게 새겼다.

조선 세종 때 제정된 도량형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기준이 문란해졌는데, 영조 때 이를 다시 교정하여 정비하였고 호조戶曹 등의 관청에서 낫쇠로 만든 표준 자[유척籒尺]를 각 지방에 반포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이 자에 표시된 각 척도의 길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황종척	포백척	영조척	예기척	주척
34.61cm	49.25cm	30.83cm	27.47cm	20.70cm

경혈을 나타내는 청동인체상

鍼金銅人

조선朝鮮



침과 뜸을 이용하는 치료법인 침구針灸를 공부하기 위해 동으로 사람 모형을 만들어 시술 위치를 표시하였다. 청동인체상의 표면에 경락의 흐름을 선으로 표시하고, 점으로 혈의 위치를 나타내었는데, 이 점이 침이나 뜸을 놓는 자리이다. 궁중의 내의원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격진천뢰

飛擊震天雷

조선朝鮮

보물 제860호



성을 공격하거나 수비하기 위해 화포인 완구碗口에 장전하여 사용하는 포탄의 일종으로 무기 제조 기술자인 이장손李長孫이 발명하였다. 적진에 떨어지면 일정 시간 후에 폭발했으며 폭발 시에는 포탄 안에 있는 쇳조각이 별처럼 부서져 사방으로 날아가 적을 살상하였다.